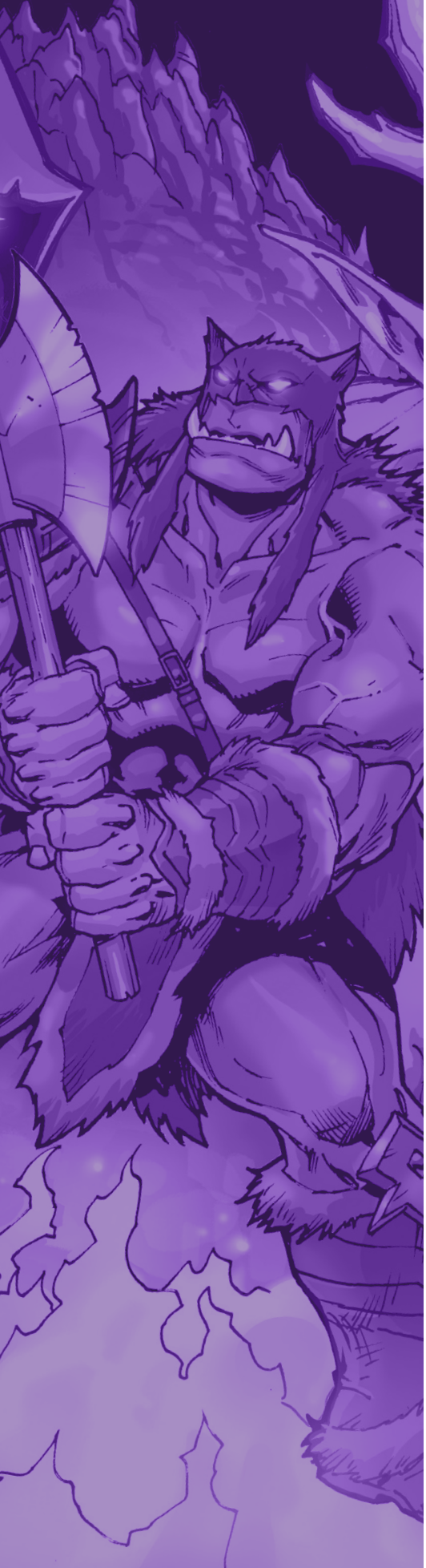
BLIZZARD ENTERTAINMENT
#2 of 3
HEARTHSTONE
얼어붙은 왕좌의
기사들
안식 없는 숲
MATT BURNS • RAMON BACHS



HEARTHSTONE 얼어붙은 왕좌의 기사들

안식 없는 숲

MATT BURNS 글

EUNHO SHON 번역

RAMON BACHS 아티스트

COMICRAFT 식자

ALLISON MONAHAN 전임 교열 편집자

CATE GARY 선임 편집자

ROBERT SIMPSON 퍼블리싱 수석 편집자

RAMON BACHS 표지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이너

BEN BRODE
JASON CHAYES
DAVE KOSAK
GEORGE KRSTIC
MATT PLACE
BEN THOMPSON
ALEX TSANG
크리에이티브 자문

SEAN COPELAND
CHRISTI KUGLER
JUSTIN PARKER
세계관 자문

ANDY BROCK
CAROLINE HERNÁNDEZ
KEITH LANDES
BRIANNE M LOFTIS
IAN SHEPHERD
RYAN THOMPSON
프로듀서

BYRON PARNELL 글로벌 라이센싱 선임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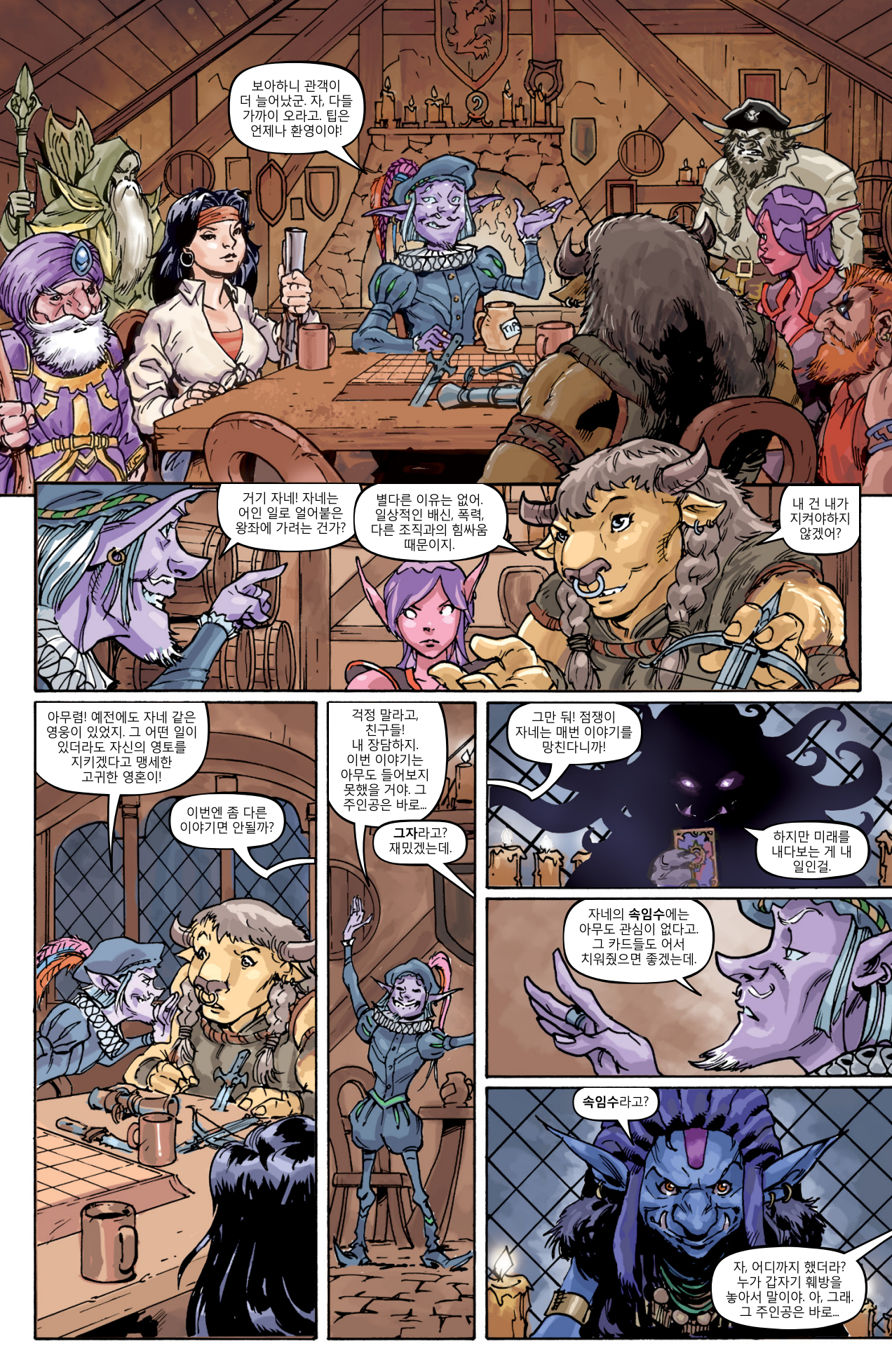
RALPH SANCHEZ 크리에이티브 개발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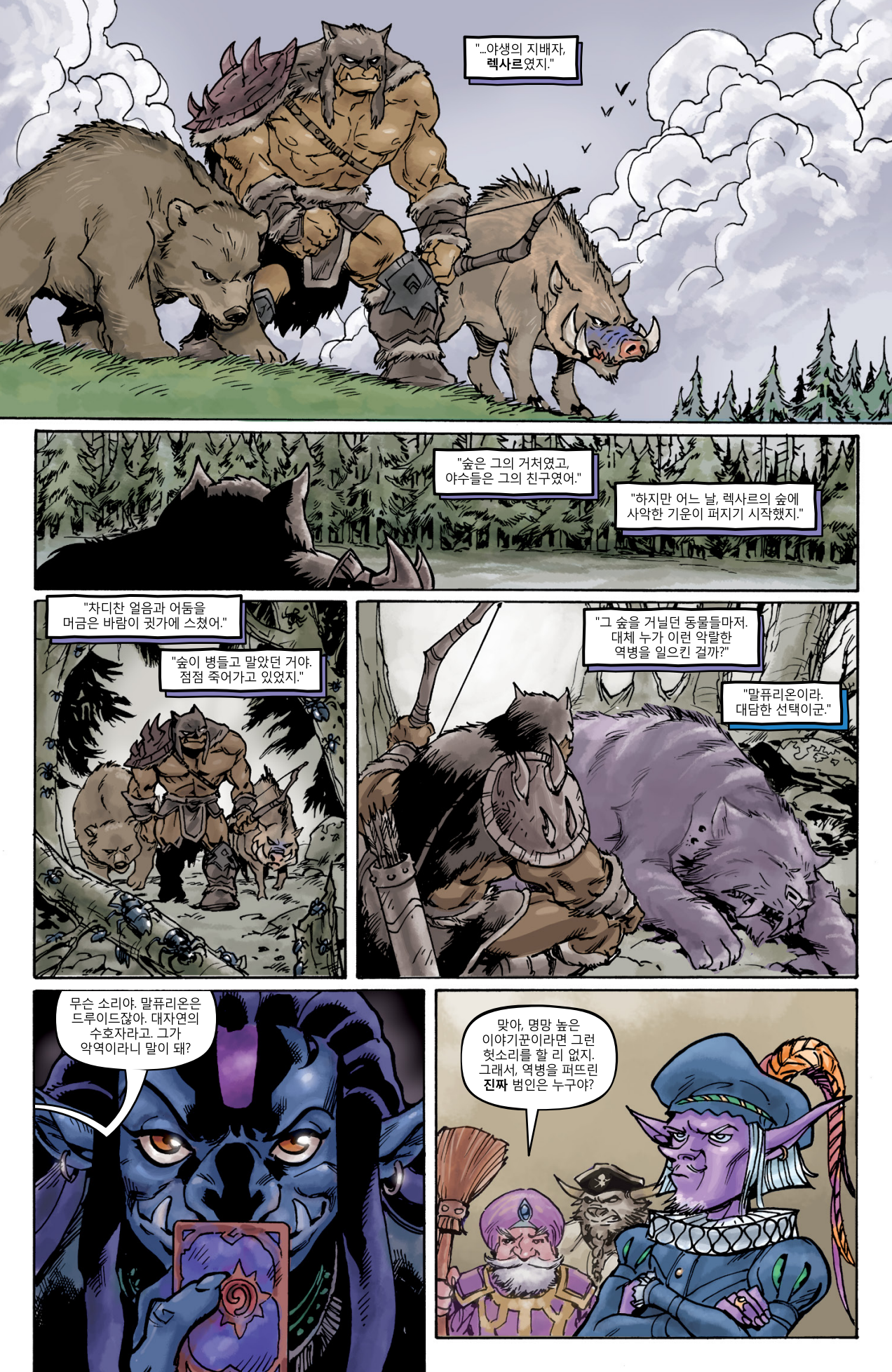
DAVID MACHO-GÓMEZ 도움 주신 분

GET OTHER GREAT BLIZZARD PRODUCTS AT
GEAR.BLIZZARD.COM

HEARTHSTONE: 얼음왕관 - 안식 없는 숲 ©2017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에게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Hearthstone과 Blizzard Entertainment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


보아하니 관객이 더 늘어났군. 자, 다들 가까이 오라고. 팁은 언제나 환영이야!
거기 자네! 자네는 어인 일로 얼어붙은 왕좌에 가려는 건가?
별다른 이유는 없어. 일상적인 배신, 폭력, 다른 조직과의 힘싸움 때문이지.
내 건 내가 지켜야하지 않겠어?
아무렴! 예전에도 자네 같은 영웅이 있었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영토를 지키겠다고 맹세한 고귀한 영혼이!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면 안될까?
걱정 말라고, 친구들! 내 장담하지. 이번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그 주인공은 바로...
그자라고? 재밌겠는데.
그만 둬! 점쟁이 자네는 매번 이야기를 망친다니까!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게 내 일인걸.
자네의 속임수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그 카드들도 어서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속임수라고?
자, 어디까지 했더라? 누가 갑자기 훼방을 놓아서 말이야. 아, 그래. 그 주인공은 바로...


"...야생의 지배자, 렉사르였지."
"숲은 그의 거처였고, 야수들은 그의 친구였어."
"하지만 어느 날, 렉사르의 숲에 사악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지."
"차디찬 얼음과 어둠을 머금은 바람이 귓가에 스쳤어."
"숲이 병들고 말았던 거야.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
"그 숲을 거닐던 동물들마저. 대체 누가 이런 악랄한 역병을 일으킨 걸까?"
"말퓨리온이라. 대담한 선택이군."
무슨 소리야. 말퓨리온은 드루이드잖아. 대자연의 수호자라고. 그가 악역이라니 말이 돼?
맞아, 명망 높은 이야기꾼이라면 그런 헛소리를 할 리 없지. 그래서, 역병을 퍼뜨린 **진짜** 범인은 누구야?

"말퓨리온이 맞았어.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말퓨리온이 아니었지. 그는 숲의 재앙이자 자연을 타락시키는 자, 역병의 드루이드였으니까."

"자연을 지키기 위해 렉사르는 결심을 했지."

"그의 조준은 정확했고, 그의 심장은 순수했어."

"하지만 때로는... 신념만으로 악을 물리칠 수 없는 법이지."

"렉사르는 실패했어. 숲은 시들어갔고, 야수들은 쓰러졌지."
"맹독이 동물들의 핏줄을 태워 들어갔지만 렉사르는 그들을 치료할 수 없었어."
"슬픔이 그의 심장을 옥죄자, 렉사르는 다짐했지. 자신의 뜻을 이룰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고."
"그러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고 뒤틀린 옥좌의 그림자가 렉사르에게 드리웠어."
"그리고 그곳에는 굴단이라는 자가 서 있었지."
하지 말라고!
"굴단은 렉사르가 아끼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로 약속했지."
"그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어."
"그는 렉사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

"굴단은 렉사르에게 그의 야수들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
부정한 힘을 깃들게 해서 말이야."
"푹발하는
박쥐도 있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야수들을 기워
붙여서 만든 거 아냐?"
"송곳니가
뱀으로 된
멧돼지라거나!"
"잠깐!"
"악어사슴!"
"그만! 너무
터무니 없잖아!"
짤랑
짤랑
점점
재밌어지는데!
TIPS
어... 그렇지? 그래!
렉사르는 누더기야수들을
만들어 낸 거야!
그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은...
"...기괴하기 그지 없는
곰상어였지!"
짤랑
짤랑
짤랑
짤랑
짤랑

"누더기야수들이
되살아나면서 숲은 전율했어."
"그리고 그 엄청난
타락의 힘에..."
"...말퓨리온조차도
야수들의 송곳니와 발톱을
당해낼 수 없었지."
"하지만 렉사르가
결정타를 가하려던
순간, 말퓨리온이
입을 열었어."
너도... 너도 본
건가? 열어붙은
왕좌의... 그림자를...

말퓨리온 또한 숲을 지키려던 것 뿐이었지.
"그만! 내 이야기를 얼마나 더 망칠 셈이야!"
"말퓨리온도 어둠의 존재가 자연의 생기를 흡수하는 걸 알아챘고, 두건을 쓴 어느 이방인이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에게 넌지시 말했지."
"그와 렉사르는 같은 자의 꾀임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내 **속임수**가 어떻다고?
그 정도면 됐잖아, 점쟁이 할멈. 거기까지 해두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해주자고.
그래! 그 오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굴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굴단마저도** 더 큰 악을 섬긴다고 하지.
말퓨리온과 렉사르를 타락시킨 건 단지 주인의 명을 따른 것 뿐이라고 말이야."

이 이야기를 새겨들으라고, 아가씨. 너무 먼 곳까지 발을 들이다간...
그래, 잘 알아들었어.

나를 속여서 얼어붙은 왕좌에 가지 않게 만들고 곰상어를 독차지할 셈이지?
그건 내가 지어낸 거라고! 곰상어란 게 진짜로 존재할...

곰상어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다 말해.
안 그러면 분위기가 험악해질 거야.

그 오크는 그럼 왜 그랬던 거야?
렉사르는 숲에서 어떻게 상어를 찾았지?
강물상어겠지. 당연하잖아?